

1609년 여름 柳夢寅 燕行 길의 몇 장면

- 압록강에서 廣寧까지 -

이 승 수 (한양대 국문과)

목차

1. 서 언
2. 출발 즈음의 정황과 작품 개관
3. 시의 형상에 드러나는 체험과 정서
4. 소 결

1609년 5월초 유몽인은 세 번째 燕行에 나섰다. 직책은 正使였다. 그는 11월에나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250수에 달하는 시를 남겼다. 이 시들은 유몽인의 내밀한 정서에서부터 세계관까지를 보여주는 다채롭고 폭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이 논문은 250수의 시 중, 압록강에서 廣寧에 이르는 20여 일 사이에 지어진 52수의 시를 텍스트로 삼아, 당시 유몽인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미시적 고찰은 한 인물의 특정 시기 생동하는 면모를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유몽인 및 그 시대의 전체를 이해하고 재구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먼저 논의한 것은 시의 형식이다. 이 구간에서 그가 남긴 시는 모두 52수인데, 그 중에서 12구 이상의 장편시가 20수나 된다. 이는 매우 특별한 현상으로, 그 자체가 통제되지 않은 激情의 분출이라는 특징이 된다. 당시 유몽인의 심리나 미의식이 함축·절제보다는 범람 및 방출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 현실에 대한 혐오, 여행이라는 특수 상황, 조선과는 다른 요동의 광막한 지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대화체를 활용한 입체적 구성과 시상의 역동적 전환은 부수적인 현상이다.

당시 그는 정국의 변화로 말미암아 1년 남짓 강요된 실직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그의 건강과 심리는 매우 위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떠날 때부터 유몽인의 심사는 몹시 불편했으며, 이러한 심리 상태는 지속된다. 하지만 유몽인은 상투적인 자탄이나 유약한 감상애 마음을 맡기지 않는 않았다. 넓은 세계의 체험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남달랐던 유몽인은, 불편한 심사 가운데서도 새로운 문물을 체험하고 견문을 넓힐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며, 사신으로서의 포부와 임무를 재삼 다짐하였다. 유몽인에게 연행은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신나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에, 그의 정신은 늘 적절한 긴장을 유지했다.

핵심어 - 유몽인, 연행로, 연행록, 요양, 광녕

1. 서 언

1609년 여름 유몽인은 세 번째 燕行에 나섰다. 그는 이미 質正官(1591년)과 書狀官(1596)으로 두 차례 북경에 다녀온 바 있다. 이번에는 聖節使行의 정사였다. 이 해 9월 4일

명나라 萬曆帝 朱翊鈞(1563~1620)의 47번째 생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성절사는 명나라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냈던 사행이다. 이 글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으로 돌아가, 연행을 떠나기 직전 유몽인이 처한 상황과 지닌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압록강에서 廣寧에 이르는 20일 정도의 여정을 동행하며 유몽인이 보여준 여러 면모를 포착해보려고 한다. 다행히 유몽인은 이 구간을 배경으로 50여 수의 시를 남겨놓아, 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당시 그는 어디를 지났고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장면에서 시선을 빼앗겼는가? 무엇을 느꼈고 상상했는가? 고민과 갈등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죽은 역사 인물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 대화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은 역사 인물 유몽인의 한 시기 행적을 복원하는 작업이고 그 은밀한 내면을 엿보는 일이다. 이러한 조명이 여러 측면에 가해지고 그 결과들이 모아지면 비로소 역사 인물의 부활이 가능해진다. 본고에서는 거시적 조망은 유보하고, 또 유몽인에 대한 어떤 역사적 평가도 자제하려고 한다. 다만 관찰의 범주를 20일 남짓 동안에 지은 시 50여 수로 제한하여, 유몽인에게서 실시간으로 발생했던 미묘하고 복잡한 실존의 순간들을 재생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거시적 조망 속에서 탈락했던 유몽인의 체취와 호흡을 느끼게 해 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유몽인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데에도 유효할 것이다.

2. 출발 즈음의 정황과 작품 개관

선조는 1608년 1월 28일 유몽인을 도승지에 제수하였다. 왕명 출납의 중차대한 직무를 맡게 된 것이다. 권력도 얻고 정치적 포부도 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유몽인은 이 직위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 이틀 뒤인 2월 1일 선조가 승하했기 때문이다. 바로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다. 광해군이 아직 명나라로부터 세자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였던 데다, 조정에는 광해군을 견제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¹⁾ 어수선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급기야 유몽인은 2월 11일 탄핵을 받는다. 함께 탄핵된 직제학 김대래에게는 삭직 출송의 처분이 있었지만 유몽인에 대한 조치는 실록에 나와 있지 않다. 이날부터 3년 6개월 간 그의 이름은 실록에 보이지 않는다. 『연보』에는 당시 유몽인이 물러나 중남산 아래 弊居에 屏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황으로 보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던 것으로 보인다. 도승지에서 물러난 뒤 유몽인의 심경은 「終南散閑錄」에 실려 있는 20여 수 시들로 추정할 수 있다. 여러 시들에 묻어 있는 유몽인의 정서는 극심한 분노와 절망이었다.

저물녘 우리 님이 오신단 소식 없고	黃昏虛報美人期
거적에 추위 스며 찬물을 끼얹은 듯	寒入牛衣澆水時
흑풍은 산 밖에서 눈보라를 몰아오니	山外黑風供雪意
깃든 새 어디에서 편안하게 잠자려나	棲禽何處可安枝 ²⁾

짧지만 寓意로 가득하다. 美人은 임금을 가리키는 관습적 비유이다. 날이 저물어도 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없다. 절망적 상황이다. 게다가 옷은 거칠고 얇아 마치 물을 끼얹은 듯 춥

1) 광해군 즉위를 전후한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한명기, 「폭군인가 현군인가, 광해군 다시 읽기」, 『역사비평』 44, 역사비평사, 1998.8, 163~172쪽 참조.

2) 『어우집』 권 1, 「終南散閑錄」, 「次成則行韻」. 成則行은 成晉善(1557~?).

다. 3,4구에서는 시상이 외부로 전환된다. 산 밖에서 흑풍이 눈보라를 몰아오려 하니, 숲에 깃든 새는 추위와 불안으로 떨고 있다. 이 새는 물론 자아의 외적 상관물이다. 도성 안에 있지만 구원의 소식은 없고, 돌아가는 정세는 불길하다. 이 시는 추위와 두려움에 떠는 작은 새의 노래인 셈이다. 이 시에서는 그나마 은유를 통한 심경의 객관화라는 여유가 발휘되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망이 자학처럼 표출되기도 했다. 한 시에서 유몽인은 뒷날 자신을 알아줄 사람이 있으리니,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며 걱정을 토로하기도 했다.³⁾ 같은 해에 지어진 「古詩」 연작 15수에는 당시 유몽인의 심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한 마리 용이 물을 떠나자 뱀 떼가 들판에서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그의 분노와 현실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⁴⁾

이러한 상태는 별다른 변화 없이 1609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서 명나라 만력제의 생일 축하 사절에 대한 의론이 일어났고, 논란 끝에 유몽인이 정사로 낙점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사는 정2품 이상의 고관이나 종실 중 명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규례였으므로, 유몽인에게도 먼저 거기에 부합하는 벼슬이 내려졌을 것이지만 현재로선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사행의 구성과 도성 출발일도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그 전 해 성절사행이 4월 28일 떠났고, 1609년 당해에는 5월 2일 성절사행의 무역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5월 2일 이후 며칠 안에 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날날이 헤아리면 만 리를 어찌 갈까	萬里何堪數數遊
요즘의 근력이야 다락도 힘겨운 걸	此時筋力倦登樓
진흙 마른 처마 등지 제비 막 부화하고	泥乾簷壘燕初乳
연두 빛 독 위에선 피꼬리 노래하네	翠織池堤罵亂流
온갖 병 낳지 않아 얼굴은 시커멓고	百病難醫緇染面
사흘간 안 뽑으니 머리 온통 희도다	三朝不鑷白渾頭
큰 기상 외려 남아 마음 기약 멀거니	猶餘小魯心期遠
중원을 편력하며 지음을 찾으리라	欲訪知音遍九州 ⁵⁾

사행에서 처음 지은 시로, 黃州 黃岡縣을 지나며 지은 것이다. 기력은 다락 오르기도 힘겨울 정도로 부실한 상태였다. 제비가 막 부화하고 피꼬리 소리가 청아하니 계절은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5월이지만, 먼 길 떠나는 여행자는 이런 저런 병치레 때문에 얼굴은 까맣게 닳고 머리는 온통 흰색이다. 발랄한 시절과 달리 여행자의 처지는 침울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스스로 격려하고 분발하면서 시상은 마무리된다. 동산에 올라 뽕나라를 작게 보았다는 공자처럼 포부를 크게 하고, 이 번 길에는 중원 땅을 두루 다니면서 知音을 찾아보리라고 다짐한다. 먼 행로를 나서는 여행자의 포부와 기개가 느껴지는 동시에 조선에서 그가 맞보았던 소외감과 고독감이 함께 감지된다.

3) 위와 같은 곳. 「過死行」. “죽고 싶다 죽고 싶어 서글픈 내 삶이여, 살아서 욱보느니 게 나오리라. 가슴속 들여 보니 무언가 물건 있어, 요즘의 사람들과 우열을 건줄 건가. 어찌서 아이들은 나만을 밟아대나, 고독한 50년 삶 지기도 하나 없네. 뒷날에 금석으로 알아줄 이 있으리니, 사양 말고 어서 죽어 황천에 돌아가자. 過死過死哀吾生, 生兮何辱死還榮. 視吾胸中似有物, 肯與今人較甲乙. 如何兒曹向我趾, 獨也五十無知己. 他年人有識我金石上, 不辭過死歸黃壤.”

4) 위와 같은 곳, 「古詩」 6. “一龍曾失水, 羣蛇中野起.” 광해군 즉위 직후인 1608년 유몽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시」 15수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5) 권 2, 「次黃岡壁上韻」.

이후 유몽인의 여정을 정확하게 재구하기에는 자료가 소루하다. 여러 시에 나오는 몇몇 시간 표지들로 일정의 대략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유몽인은 오랜 장마로 遼陽에서 열흘 가량 지체했고 광녕에서 七夕을 맞이했다. 그 시기 조선 사행의 여정은 압록강에서 요양까지 6박7일, 요양에서 광녕까지는 5박 6일 정도 소요되었으니, 전체는 11박 12박이 걸리는 노정이었다. 그런데 요양에서 하루 목을 걸 열흘을 묵었으니 여기에 9박을 더하면, ±2일 정도의 오차범위 안에서 20박 21일 정도가 걸린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5월 초에 도성을 떠난 유몽인 일행은 6월 보름 즈음에 압록강을 건넜고, 7월 초하루 즈음 요양을 떠나 7일 전 광녕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행에서 유몽인은 250수에 달하는 꽤 많은 시를 남겨놓았다. 이 시들은 분량도 풍부할뿐더러, 외형으로는 당시 명나라 사회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았고, 또 조선 지식인의 자의식과 세계에 대한 통찰을 감추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의 의의가 크다. 이중 압록강~광녕 사이에서 지어진 작품은 41제 52수에 이른다. 이 시들의 제목과 형식, 그리고 몇몇 특징들을 개괄하여 일람할 수 있도록 표로 제시한다.

[표] 압록강~광녕 사이 작품 일람6)

번호	제목	형식	내용	장소	
1	渡鴨綠 (2수)	5언14구, 20구	압록강 건널 때의 정황과 사신으로서의 다짐	東 八 站	
2	鳳凰城次酬竹溪	7율	역사 회고, 竹溪는 동행 서장관인데 신원 미상		
3	近體	7율	高唐 전쟁 관련 역사 회고		
4	鳳凰山	5언20구	高唐 전쟁 관련 역사 회고		
5	甕北河	7율	용북하 주변의 풍광과 여행자의 감회		
6	過龍鳳臺	5언20구	通遠堡 근처 지명, 權臣들에 대한 부정 의식		
7	宿分水嶺效謝靈運體	5언16구	풍경과 사물 인식		
8	高嶺途中	7율	摩天嶺, 길의 험거움과 관계 진출의 후회		구 간
9	道中口占	5언18구	풍광과 감회		
10	過韓家墳 踰靑石嶺 向狼子山	7율	甌水站-靑石嶺-狼子山 구간 이동의 감회		
11	甜水村途中寫懷	7율	사신행차 구경하는 침수촌민들 광경	遼 陽	
12	山村夜坐	7율	狼子山村에서 묵을 때의 감회		
13	次陰浦韻 遼東懷遠館相逢	7율	요양 懷遠館에서 귀로 중의 사신 陰浦와 수창한 시		
14	華表柱	5언16구, 7율	丁令威 고사		
15	白塔寺	5언18구	백탑의 내력과 효험		
16	西會寺	5언22구	遼陽城 대서문 밖 서회사 방문 시의 정황		
17	八角樓	5언30구	遼陽城 서남쪽 각루에 올랐을 때의 단상		
18	西會寺	7율	위와 같음		
19	八角樓	7율	위와 같음		
20	遼館書懷	7율	요양성 동남쪽 밖에 있었던 懷遠館		
21	酒家小童能誦庸書熒之	5언14구	중국의 개방적 인재 등용에 대한 생각		
22	離懷遠館宿首山舖	7율	요양 객관을 떠나는 감회		
24	鞍山途中 (2수)	5율	요양에서 안산 가는 길의 풍광과 감회		
25	途中觸熱	5율	한여름 노중 풍경		
26	雜詩	5언34구	요동의 풍속과 지식인의 자의식		
27	由鞍山向海州衛	7율	요동의 방어시설과 시인의 호기		
28	海州衛 見國人孫三, 孫	5언 40구	입관 때 발생한 조선 유민과의 만남, 조선 지식인		遼

6) 표에서 1, 18, 19, 30, 31, 36번의 여섯 편 시는 『於于集』 권 1의 「朝天錄」에, 나머지는 모두 『於于後集』 권 1의 「朝天錄」에 실려 있다. 시들은 문집에서 공간 이동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을 그대로 따랐고, 여섯 편 작품은 공간 이동 순서에 맞게 재배치하였다.

	金, 太仁孝, 成龍來訪		의 비에		
29	宿海州衛屠家	5월	열악한 숙소 사정	野 구 간	
30	午憩徐都同隴下村庄	5연30구	휴식처 장원의 정황		
31	牛家庄途中口占	7월	海州-牛家庄 사이의 거리 풍광		
32	牛家庄	7월	牛家庄의 열악한 숙소 사정		
33	牛家庄 示諸學生	5연12구	현지 학생들에게 들려준 사신의 다짐		
34	垣上驅車	5월	遼東邊牆의 정황		
35	三叉河	7월	三叉河의 역사지리		
36	沙嶺驛書懷	5연 20구	사령역의 이국 풍광과 소외의식		
37	遼野有感	5연 26구	조선의 정치 현실과 자신의 처지		
38	高平卽事 (3수)	5연20구, 5 7월	戰陣의 긴장감		
39	發高平	5월	고평 근처의 풍광		
40	遼陽行	7연20구	요야 전체의 지리형세와 풍광		
41	廣寧 (8수)	7월	광녕성의 변화상과 명나라에 대한 신뢰		廣 寧
42	廣寧	5연24구	광녕성의 변화상		
총 41제 52수 / 5연 25수, 7연 52수 / 율시 32수, 10구 이상 長詩 20수 / 연작 4제 13수					

형식 분포로 보아 우선 눈에 띄는 현상은 絶句가 한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소한 이 며칠 동안 만큼은 유몽인이 절제와 함축을 앞세우는 시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유몽인은 시작에 있어 평이한 언어의 사용이나 간결한 표현보다는,奇怪하고 難澁한 시어 사용을 중시하였고 또 실천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서를 통한 지식의 축적을 시 창작의 근거로 삼았던 까닭이다.⁷⁾ 52편의 형식 분포는 유몽인의 전체적인 시 창작 경향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對句의 짜임새와 고사의 원용을 중시하는 율시가 32편이나 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이보다 특별한 현상은 분량이 적게는 12구에서 많게는 40구에 달하는 장시가 20수에 달하며, 그 분량도 매우 불규칙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몽인이 근체시의 기본 字數는 준수했지만, 시상의 표출에 있어 형식과 분량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분방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先秦 古文을 표방했던 산문 창작 경향,⁸⁾ 遼東이라는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특 트인 지리공간을 지나는 여행자의 특별한 정서도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 시의 형상에 드러나는 체험과 정서

유몽인의 시에서 압록강~광녕 사이의 산천과 도시 그리고 건축 등은 시인의 심리 또는 정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물이 경이나 비애의 정서 혹은 성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반대로 심리 작용이 사물을 선택·착색·왜곡·기억하기도 한다. 그러한 작용이 거듭되면 둘 사이의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 작용의 특수성과 법칙성 등을 발견하는 것은 시학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이다. 이 장에서는 1609년 여름 압록강~광녕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에 나타나는, 유몽인의 심리와 사물 사이의 특수한 함수관계의 일단을 논하고자 한다. 시들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네 범주로 나누었다. ‘朝天錄’의 시들이 공간 이동 순서에 따라 편차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연행 길의 요동’이라는 특수한 장소 체험이 시작의 주요 동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7) 유몽인의 시 창작 태도와 기법에 대해서는 신익철, 『유몽인 문학 연구』, 보고사, 1998, 56~116쪽 참조.

8) 유몽인의 산문 창작 정신과 태도에 대해서는 신승훈, 「어우 유몽인 산문론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18, 2003, 63~90쪽; 김우정, 「유몽인 산문에 있어 自得의 의미와 의미실현 양상」, 『동양학』 40, 2006, 1~18쪽; 김영미, 『奇簡과 유몽인의 산문』, 태학사, 2008, 1~386쪽 참조.

1) 東八站 구간, 월경의 번민과 포부

동팔참은 구간은 압록강을 건너 요양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노정으로, 한반도와 지리가 유사한 산악 지형이다. 조선 전기 명나라 사행의 경우에는 보통 6박 7일의 일정이 소요되었다.⁹⁾ 이 구간은 조선과 명 사이의 국경이면서, 문화적 심리적 접경이다. 접경은 다의적이고 운동하는 공간이며 그래서 불안하다. 이 불안은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창조성으로 현시되기도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은 도강의 체험을 담은 시이다. 다음은 「渡鴨綠」이란 제목의 두 수 시 중 하나이다.

유람선엔 부들잎 방을 꾸미고	棠舟與蕩房
난초 향초 앞으로 지붕 엮었네	葺之以蘭蓀
앵무새 푸른빛의 술구기에다	青青鸚鵡杓
두동실 무늬 등목 술통이로다	泛彼文藤樽
우리 일행 어느덧 이르러보니	我行忽戾止
압록강은 구비 쳐 흘러가누나	言薄鴨江濱
머뭇대며 강물을 건너려는데	夷猶將欲涉
江神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江神謂我言
지난 옛날 그대 장령에 올라	昔君長嶺上
백두산 나의 근원 찾아보았지	窮我白頭源
만포의 수항정서 닷줄을 풀고	解纜受降亭
금나라 황제 무덤 찾아 갔었네	倚棹金帝墳
물줄기에 사신 배 빗겨 띄워서	一派橫漢槎
세 번이나 강 건너 천문을 찾네	三渡歎天門
소인 모두 박처럼 매달려 있고	小人盡匏繫
군자 늘 분주하게 내달리는 법	君子長波奔
기러기 주살 피해 힘차게 나나	避繳矯冥鴻
잔나비는 묶인 채 도토리 받네	賦茅羈檻猿
어찌 괴로이 움츠려 있을 것인가	焉能苦縮縮
잘 가게, 너른 세계 돌아보게나	好去遊無垠 「渡鴨綠」

사신들이 타고 건널 배의 형상을 그리는 것으로 평범하게 시상을 열었다. 화자는 배에 오르기에 앞서 머뭇거린다.[夷猶] 짧아도 너 달은 잡아야 하는 긴 여행을 나설 때의 위축된 마음의 현시이다. 이는 마치 마지못해 나서는 듯한 인상을 준다. 초반의 평면적 흐름과 가라앉은 분위기는 江神이 등장하면서, 즉 화자의 전환이라는 형식적 장치를 통해 일변한다. 흐름은 역동성을 띄고 분위기는 솟구친다. 그 이하는 모두 江神의 발언이다. 강신은 유몽인이 일찍이 압록강의 근원을 찾아보았고, 江界 땅의 受降亭에서 배를 띄워 금나라 황제의 무덤을 찾아본 일을 환기했다.¹⁰⁾ 강신은 배 타기를 주저하는 처음의 화자에게 장한 옛 체험을

9) 동팔참의 연혁과 지리, 그리고 연행 노정 등에 대해서는 이승수, 「燕行路 중의 東八站 考」, 『한국언어문화』 48,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8. 참조.

10) 유몽인은 1597년과 1598년 각각 咸鏡道巡撫御史와 平安道巡撫御史를 맡아 평안도와 함경도를 두루 다녔고, 그때 지은 시는 「北繡錄」과 「西繡錄」에 실려 있다. 당시 그는 三水의 長嶺에 올라 백두산을 굽어보았다고 했다.(후집 권 5, 「安邊三十二策贈咸鏡道監司韓益之浚謙」) 이밖에도 그는 시 여러 곳에서 장백산을 바라보고 압록강을 굽어보는 감회를 힘차게 표현하였다. 찾아보았다는 金나라 황제의 무덤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자세

환기시킴으로써 기분을 진작시킨다. 분위기를 일변시킨 다음에는 군자가 세상에서 쓰이는 방식을 말함으로써 사행의 정당성을 제시했다. 소인이야 매달린 조롱박처럼 한 곳에 머물지만 군자는 분주한 파도처럼 멀리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판단은 원숭이와 기러기의 비유를 통해 더 강화된다. 조삼모사에 현혹되는 원숭이와 자기에 대한 위협을 피해 먼 곳으로 나는 기러기는 각각 소인·군자와 짝을 이룬다. 먼 길을 떠나는 ‘君’(유몽인)은 군자와 기러기가 되는 셈이다. 유몽인은 평생 벼슬길에 있으면서도 주류 기득권 계층과 끊임없이不和하였고 그들을 부정하였는데, 燕行 관련 시문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 짙게 나타난다. 군자·鴻 / 소인·猿의 구도 또한 그러한 의식 맥락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¹¹⁾ 시상은 江神의 격려로 수습된다. 강신의 입을 빌려 자신의 포부를 다짐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유몽인은 조선을 비좁게 생각하고 중원을 주유하면 천하의 지식인들과 교류·경쟁하고 싶은 포부를 자주 드러냈는데, 이 또한 그러한 생각의 연속선상에 있다. 燕行에 대한 유몽인의 생각은 이중적이었다. 국내의 정치 현실과 기득권의 부조리한 행태를 보면 마치 억울하게 먼 나그네 길에 내몰리는 것 같아 부아가 나지만, 연행 자체만을 생각하면 건문을 넓히고 평생의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통쾌한 느낌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갓은 높이 솟았고 소매 자락 넓으니	簪笠簷脩袖寬
길 막고 박수치며 우리 차림 웃는도다	攔街拍手笑儀觀
짜지은 여인들은 창문을 열어 보고	雙雙閨女排窓出
간혹 농부들은 쟁기 놓고 구경하네	往往耕夫輟耜看
외진 시골 시들어진 쭉과도 같은 신세	絕域謾同蕭艾委
종과 술에 이름 새겨 남기긴 어려워라	盛名難許鼎鐘刊
어찌하면 초록 숲 붉은 난간 당하여	何當綠樹紅欄畔
더불어 저자에서 반생을 안락할까	共作塵民半世安 「甜水村途中寫懷」

마천령과 청석령 사이의 甜水村을 지나며 지은 시이다. 앞 네 구에서는 한여름임에도 高冠闊袖 차림의 조선 사행이 지나가자, 여인들은 짜지어 창문을 열고 농부들은 가래를 놓고 구경하는, 구경에 그치지 않고 박수 치며 웃는 모습을 경쾌하게 그려냈다. 후반부에서는 시선의 방향이 안으로 전환된다. 문득 그는 외진 산골에서 남몰래 시들어가는 쭉처럼 느껴졌고, 공명을 세우는 일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우울증의 현상처럼 심리가 침체된 것이다. 광릉까지 가는 여행 내내 유몽인은 일종의 우울증 같은 내면을 보여준다. 외부 세계로 향했던 그의 시선은 언제나 안으로 수렴되고, 그때 발견되는 자아는 늘 쓸쓸하고 외롭다. 이는 정치 현실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혐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존재론적인 그의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는 모두 그만두고 숲속 정자가 있는 마을에서 보통의 塵民이 되어 남은 반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상념에 젖어들었다. 塵民이란 넓게는 평범한 市井人을, 좁게는 저자의 상인을 뜻한다.

낭자산 자락에서 잠시 안장 풀어두니	狼子山前暫解鞍
서늘한 달덩이가 숲에서 솟아나네	正逢涼月吐林巒

하지 않다. 함경도의 회령과 종성 사이에 있는 燕雲山城(五國城)에 송나라 황제 휘종과 흠종의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가 예로부터 전승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1) 이러한 구도는 龍鳳臺를 지나며 지은 「過龍鳳臺」(6번) 에도 나타난다. 또한 문답식으로 구성된 이 시는 서늘한 자리에서 맛난 과일을 먹으며 부채질하는 權貴들과 퇴약별 아래 모기에 뜯겨가며 길을 가는 獨賢의 비애를 대조적으로 그려낸 뒤, 군자의 도리를 다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고향은 너무 멀어 바다처럼 아득하고	鄉關已越滄溟闊
나그네 길 헤매는데 강물은 차가워라	客路猶迷澗水寒
6월인데 서리 바람 북쪽서 몰려오고	六月風霜來北漠
한 지역 내와 되는 동한과 닮았구나	一區流峙似東韓
하늘이 장차 나로 연릉 계찰 삼으려니	天將使我延陵季 ¹²⁾
주 문물 살필진대 먼 노역 꺼려 마라	莫憚觀周遠役酸 「山村夜坐」

첨수참을 지나 청석령을 넘으면 湯河 가에 狼子山村이 있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조선 사신들이 묵던 곳이다. 사행은 보통 여기서 하루를 가 遼陽에 도착하곤 했다. 시는 이 마을에서 하루를 묵으며 밤에 지은 것이다. 고향은 이미 멀어졌고, 시내의 물은 차다. 외경을 빌려 쓸쓸한 심회를 드러낸 것이다. 한여름인데도 북쪽 사막에서 서리 기운이 몰려오고, 산수의 형세는 조선과 흡사하다. 5구는 조선과의 차이를 말했고, 6구는 조선과의 유사성을 말했지만, 모두 똑같이 나그네의 울적한 심사를 담아내었다. 같으면 같아서 다르면 달라서 客愁는 요동친다. 경물을 빌려 정감을 펼쳐내는 借景抒情인 셈이다. 시상은 사신의 포부와 다짐으로 달았다. 季札은 춘추시대 뭇나라의 왕자로 탁월한 외교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로, 그가 魯나라에 가서 周樂을 청하여 들은 뒤 품평한 일이 유명하다. 타국의 노래를 듣고 평가함은 그 나라의 풍속을 관찰하여 정치의 득실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시름에 젖어있던 유몽인은 얼굴을 털며,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자각하고 나아가 사신의 임무를 되새겨 다짐한다.

2) 요동별 첫 도시 遼陽, 풍속의 관찰과 자기 정체성 인식

조선 사신들은 보통 낭자산 아래서 묵고 이튿날 遼陽에 도착했다. 석문령부터는 지세가 점차 완만해지고 고려충 이후에는 망망무제한 요동벌이 펼쳐진다. 요양은 조선을 기준으로 요동벌에 위치한 첫 번째 도시이다. 명나라 시절에는 遼陽城 동남쪽 밖에 객사 懷遠館이 있어, 조선 사신들은 보통 여기에 투숙했다. 유몽인도 회원관에 여장을 풀었다. 마침 6월이라 장마철을 만나 유몽인 일행은 여기서 열흘간이나 지체했다.¹³⁾ 동팔참과 조선과 명의 접경이라면, 요양은 산천의 형세는 물론이고 문물 일반이 모두 완전 이역이었다. 따라서 요양에서부터 조선 사신들은 새로운 지형에 놀랐고 낯선 문물과 풍속을 관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타적 자아를 인식하고 성찰했다. 아래는 西會寺¹⁴⁾에서의 감회이다.

사신 행색 상국에 들어와서는 裾役入上國¹⁵⁾

12) 延陵은 춘추시대 뭇 나라의 공자 季札이다. 그는 周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음악을 청해 듣고, 주나라의 정치와 덕화를 풍유적으로 비평한 바 있다. (『左傳』 襄公 29년조에 실려 있으며, 『古文觀止』에도 「季札觀周樂」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3) 「遼館書懷」(20)에 “천년이나 오래 된 요동성에서, 열흘이나 군사를 머물게 하네. 千載遼城古, 經旬使軍停.”란 구절이 있다. 또 「離懷遠館 宿首山舖」에서도 “객관에 묵인 것이 감옥과 같았는데, 오늘에야 새장 벗어 마음껏 날아가네. 拘幽賓館類圜牆, 此日籠禽滿意翔.”라고 하여, 꽤나 답답하게 객관에 갇혀 지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4) 西會寺는 大西門 밖에 있던 절로 명대에 간행된 『遼東志』(1537)와 『全遼志』(1565)의 지도에는 그 위치가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다. 방위상으로는 회원관의 맞은편에 있었고, 팔각 望京樓는 요양성의 서남쪽 모서리에 있었다. 당시 서회사 안에는 노승림이 울창했는데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이 부딪쳐 비파소리를 냈는데 이 ‘松柏琴聲’이 요양 8경의 하나로 꼽혔다. 遼陽八景을 처음 시로 지은 사람은 명대의 李大葆(1522~1566)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辽陽明清八景」(http://blog.sina.com.cn/s/blog_728f886101011j6q.html) 참조.

15) 裾는 옷의 깃을 뜻하는 글자이다. 裾役은 어디에서도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사신의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복식이나 갖춰 입은 무능한 사신으로 자신을 겸칭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대단한 볼거리를 많이 지났네
 東遼서는 말고삐 멈춰 세웠고
 西會에선 말안장 정돈을 했네
 성 안의 네거리를 지나서 오니
 단청 사찰 제단이 엄연하구나
 뜰 너른데 화초들 우거져 있고
 집 높은데 단청은 빛이 나누나
 고승의 갈포 장삼 정갈도 하며
 대 걸상에 자리는 서늘하도다
 오리 새긴 향로엔 우두향 타고
 은제 주전자에선 용단차 끓네
 나의 먼 행역 고통 위로한다고
 야채를 반찬으로 차려 주었네
 발돋움해 황성을 바라보다가
 언제나 조선으로 돌아갈거나
 늙고 보니 세상에 지음은 적고
 갈림길은 많아서 가기 어렵다
 앞으로 작은 절집 하나 짓고는
 숲속에 의지하여 삶을 마치리
 내 고향 그대들에 자랑하면서
 애오라지 더불어 배회하노라

所歷多遼觀
 東遼頓征轡¹⁶⁾
 西會肅遊鞍
 通衢經闕闔
 華刹儼兜壇
 庭曠蔭雜翠
 堂崇輝流丹
 高僧葛袍淨
 匡榻夏簟寒
 寶鴨爇牛頭
 銀甌煎龍團¹⁷⁾
 勞我遠征苦
 野藪供客餐
 跂予望皇邑
 曷月旋東韓
 抵老知音少
 多歧行路難
 將營小伽藍
 畢世依林巒
 吾鄉多爾曹
 聊可與盤桓 「西會寺」

西會寺는 명청대에 걸쳐 꽤 유명했던 사찰인데, 유몽인의 두 편 시 외에는 우리 연행록 어디에서도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14구까지는 요양성 안의 거리와 西會寺 안의 광경들을 묘사했다. 유몽인은 회원관에서 요양성 안으로 들어가 대로를 지나 대서문으로 나서 서회사로 갔는데, 그 사이에서 목도한 것이 모두 낯선 문물이다. 불전과 화단, 승려의 행색과 대나무 걸상, 우두향과 용단차 등 특히 서회사의 경관이 자세하게 묘사되었다. 차를 끓이고 음식을 내는 등 손님접대도 소홀하지 않았다. 이 모두가 곧 여행자의 낯선 문물 체험이다. 낯선 문물은 이질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아의 자기 성찰을 유도한다. 유몽인은 여행자의 처지를 자각했고 고독감에 사로잡혔으며 친숙한 고향을 떠올렸다. 낯선 문물 앞에서 문득 자기 정체성이 부상한 것이다.

귀여워라 맑고도 깨끗한 아이
 다가와 나의 침상 앞에 서누나
 묻노니, 너희 집이 어디 있느냐
 버드나무 옆에 있는 집이랍니다
 푸른 깃발 지붕에 꽂혀있으니
 푸른 술이 흐르듯 맑사옵니다
 소매 안에 붓을 지니었는데
 새 글을 나를 위해 빌려주었네
중국의 인재 배출 틀이 없으니

可愛小童清
 來立我床下
 問爾家何住
 云是柳邊舍
 青帘屋頭樹
 綠醕清如瀉
 袖中銜楮毫
 新篇爲我借
中國賢無方

16) 東遼는 그 뜻이 분명치 않은데, 방위상 요양성 동쪽에 있었던 동회사나 조선관을 지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全遼志』의 「遼陽鎮境圖」에는 조선관 북서쪽 가까운 곳에 東會寺가 있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17) 牛頭는 향목의 이름이고, 龍團은 보이차의 일종이다.

술 파는 사람들 꺼려하리오
 힘 쓰거라 부지런히 노력하여서
 하루 빨리 청운 위 수레 몰거라
 얼굴 위에 인재의 기상 있으니
 네 어찌 오래도록 가난하겠니

何嫌賣漿者
 勉爾勤飭身
 早驚青雲駕
 眉宇得其人
 爾豈長貧也 「酒家小童 能誦中庸 書以獎之」

하루는 마을 소년을 만나게 되었다. 아마 소년이 객관을 찾아왔는데, 정황상 술을 가지고 왔던 모양이다. 아이의 미목이 청수하고 거조가 의젓했다. 그래서 앞에 불러놓고 대화를 시작했다. 대화 내용을 산문으로 풀면 다음과 같다. “어디 사느냐?” “버드나무 아래 집입니다. 술집을 하는데 술맛이 매우 좋습니다.” “글을 읽었느냐?” “조금 읽었지요.” “외워볼 수 있을까?” 소년은 『중용』을 외웠다. 보니 소매 안에 붓도 지녔다. “글도 짓느냐?” 소년은 자기가 지은 글을 내밀었다. 유몽인은 푹푹하고 씩씩한 소년이 사랑스러워 시를 한 수 지어준 것이다. 시는 이런 덕담으로 마무리된다. “부지런히 공부해서 성공하렴. 크게 될 얼굴이니, 가난이야 얼마 가겠느냐!” 시를 건네자 소년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읽어보고는 읊한 뒤 물러갔다. 1609년 6월 하순 장마철에 회원관에서 있었던 광경이다.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문학에서는 이와 같은 작은 목소리와 숨겨진 장면이 소중하다. 짙은 글자의 목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린다. 이는 인재 등용에 신분을 따지지 않는 나라이니만큼 성공에는 별 문제 없으리라는 소년에 대한 격려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제한 조건을 만들어 인재들을 방기하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뼈아픈 비판이기 때문이다.¹⁸⁾

열흘 만에 회원관을 떠난 유몽인 일행은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 鞍山으로 향했다. 1679년 瀋陽 경유 노정으로 바뀌기 전까지 사신들은 이 길을 이용했다. 날은 무더웠다. 낮선 산천 풍광 외에, 수레 열대가 나란히 달릴 만큼 넓은 길과 천 마리 말에 짐바리를 실은 행상의 대열, 그리고 여기저기 늘어서 있는 烟臺들이 특히 인상적이었다.¹⁹⁾

나는 본디 동국의 사람인지라
 익힌 바 그 얼마나 촌스러운가
 서쪽으로 천 리를 넘게 왔는데
 접하는 일들마다 날로 새롭네
 어찌 한갓 언어만 다를까보나
 풍속도 여기 저기 나뉘어지네
 오랑캐 말이라고 너흰 우릴 비웃고
 너무 시끄럽다 우린 너힐 싫어하네
 한 스승이 무리 떠들 어찌하리오
 莊巖에 둘 방법을 구하지 않네²⁰⁾

我本東國人
 所習一何俚
 西來千里餘
 觸事日以異
 豈徒語言殊
 風俗別彼此
 侏儻爾笑吾
 嗔曉吾厭爾
 一傳奈衆咻
 不求莊巖置

18) 권력 구조와 정치 제도의 모순으로 쓰이지 못하는 능력이나 인재에 대한 불만과 안타까움은 유몽인의 일생 내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광녕성에서 만난 儒服 입은 백면서생과 구슬 파는 黃衫 차림의 사내를 시정에 묻혀 있는 비범한 인재들이라 직관하고 마음 아파하였다. (41번 「廣寧」 8)

“관음각 안에 들어 고삐 처음 늦추었다. 상제궁 앞을 향해 걸음 다시 재촉하네. 흰 얼굴의 유복 선비 어느 집 사람이고, 구슬 파는 황삼 사내 어디에 살고 있다. 거리에서 만난들 삶의 내력 알지 못해, 풍속 노래 문자 하나 언어가 다르구나, **해외에도 안타깝지 않은 사람 없으니, 대방서도 큰 선비를 알아보지 못하구나.** 觀音閣裏轡初迂, 上帝宮前步更趨. 白面誰家縫掖士, 黃衫何處賣珠夫. 相逢街陌平生味, 欲問風謠說話殊, **海外無人吾不恨, 大邦猶未識鴻儒**”

19) 「鞍山途中」 2수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연대는 16세기 후반 여진족을 방비하기 위해 축조한 군사시설이다. 1609년은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며 한참 세력을 키우던 때이다.

20) 9), 10) 두 구절은 『맹자』, 「등문공하」에서 가져온 것이다. 莊巖은 齊나라의 마을 이름이다. 맹자는 戴不

남자는 모두 다리 뻗은 채 앉고
 여인네는 발들을 싸매었구나
 지거나 이는 대신 어깨에 메고
 분가루로 늙은 얼굴 가리는도다
 부인들 머리 모양 접시꽃 같고
 춤추는 걷는 모양 한단의 그것
 꼬마들은 머리를 뽀뽀 밀었고
 궁실서도 자리를 피지 않는다
 사당은 마을 사이 널려 있고요
 절집들 민가 사이 자리 잡았네
 양과 돼지 곡물을 어찌 해치리
 닭과 고양이 서로 꺼려 않누나
 참으로 아름다워도 내 땅 아니니
 고향에 돌아감, 그만은 못하리라
 땅에 따라 풍속은 달라지는 법
 수레바퀴 규모 같다 말하지 마라²¹⁾
 공자는 구이를 누추하다 앓으셨고²²⁾
 연릉은 주나라 미덕 풍유하였지
 군자는 지난 곳을 감화시키고
 至理는 비슷한 것 포괄한다네²³⁾
다만 원키는 화폐를 유통시켜서
우리나라 살림을 되살린 뒤에
부귀와 영화를 함께 얻고는
천하의 산수 두루 보는 것일세

男子盡箕踞
 女人皆纏趾
 負戴替擔肩
 脂粉映老齒
 鬢髻蜀苴同
 躡步邯鄲似
 稚童多剃頭
 宮室不席地
 廟堂遍田閭
 蘭若間街市
 羊豕豈害禾
 鷄猫忘相忌
 信美非吾土
 不如歸故里
 隨地俗殊尚
 勿謂車同軌
 仲尼不陋夷
 延陵諷周美
 君子化所過
 至理封可比
只願泉幣通
吾邦與更始
腰金及囊錢
遍天下山水 「雜詩」

안산에서 머물며 지은 것으로 보이는 이 시는, 풍속을 중심으로 요동 체험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1)~4)구는 여행의 전체적인 인상을 제시한 도입부이다. 5)~22)구에서는 언어, 여인들의 화장과 전족, 두발과 실내 생활, 종교, 축산 등 요동 지역의 낯선 풍물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9)와 10)구에는 조선에서 아무리 漢語를 가르쳐봐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명나라에 유학생을 보내지 못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있다. 신라나 고려 시대에도 보냈던 유학생을 보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유몽인은 내내 통탄하였다.²⁴⁾ 23)~30)구는 풍물의 차이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강하게 인식하는 부분이다. 지역에 따라 풍속이 다른 것은 당연하니, 공자가 수레바퀴 규격의 같음으로 천하의 통일을 말했지만, 그 범주에서 조선은 당연히 예외였다. 마지막 네 구에서는 평소의 신념과 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상을 맺었다. 유몽인의 꿈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경제의 차원에서 화폐를 유통시켜 조선의 경제를 살리는 것, 다른 하나는 미적 욕구의 차원에서 천하의 산수를 두루 구경하는 것이었다.²⁵⁾

勝과의 대화에서 왕을 선한 길로 이끄는 방법을 외국어를 배우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했다. 楚나라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齊나라 말을 가르치려 한다면, 齊나라 사람 하나를 스승으로 붙이는 것보다 제나라 장악 고을에 가서 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외국어는 저절로 젖어들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21) 『중용』 27장에서 공자는 천하의 문물이 통일되었다며 “今天下車同軌，書同文，行同倫。”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 유몽인은 조선과 중국은 문물이 엄연히 다름을 강조한 것이다.

22) 공자가 九夷에 살고 싶다고 하자, 제자들이 누추함을 들어 반문하자, 공자가 “군자가 살고 있는데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 君子居之，何陋之有.”(『논어』, 「子罕」)라고 말한 데서 가져온 표현이다.

23) 29구는 『맹자』, 「진심장 상」의 “夫君子所過者化，所存者神.”에서 가져온 것인데 30구의 출처는 미상.

24) 특히 권 3, 「送冬至使李昌庭序」에 그러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유몽인은 시인(예술가)로서의 자아와 관료(경세가)로서의 자아를 함께 지니고 있었다. 두 자아는 때로 유몽인의 내부에서 분열·갈등하기도 하고 상보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며 유몽인의 면모를 형성했다. 마지막 네 구절에 유몽인의 두 가지 지향과 가치관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3) 광막한 요동벌, 자아의 왜소함 성찰

해주와 고평 사이에는 그야말로 사방 하늘과 땅이 닿아있는 요동벌이 펼쳐져 있다. 牛家庄, 沙嶺, 高平, 盤山 등은 사신들이 묵었던 마을이다. 삼차하를 건너면 遼東邊牆을 따라 길이 나있었다. 이 구간이 바로 조선 전기 사신들이 체험했던 遼野이다.²⁵⁾ 이 구간은 변방의 황량한 군사 지역으로, 요양처럼 명나라의 선진 문물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대신 사방에 끝없이 펼쳐진 거친 들판과 낮게 드리워진 가이 없는 하늘 사이에서의 며칠은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무한의 시공간을 체험하면서 인간은 보통 삶의 유한함과 자아의 왜소함을 자각한다. 유몽인의 자각은 존재론적인 허무감이 아닌, 조선이 안고 있는 역사사회적인 한계를 실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주에서는 작지만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孫三 등 네 사람의 방문을 받았는데 모두 조선 출신이었다.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고아가 되어 살길이 막막하자 明軍에 의탁하였다가, 그들이 철수할 때 따라 와 해주 일대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니, 임진왜란이 발생시킨 전쟁 유민이었던 셈이다. 당시 요동 일대에는 이러한 조선 출신 전쟁 유민들이 많았고, 深河戰役(1619),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을 거치면서 그 숫자는 더 많아졌다.

동국에 일찍이 난리가 나서	東國曾離亂
섬 오랑캐 팔도를 뒤흔들었네	雕題擾八區
도성이 도적의 손에 들어가	神京淪賊藪
행궁이 하늘 구석 머무셨도다	行殿滯天隅
온 가족이 적의 창칼을 만나	宗族嬰鋒刃
산속으로 위급한 몸을 피했지	山林脫逼驅
어린아이 어딘들 머물 수 있나	童孩何所薄
살아나갈 방법이 막막했다오	生理苦難圖
명나라 군대에 몸을 맡겨선	投跡華兵伍
저자에서 몸 파는 무리가 됐네	資身市販徒
요동 땅은 살기가 익숙한 데다	遼關居自慣
사람들 쓰는 말도 다르지 않지	莊嶽語相符
욕되게도 오랑캐에 항복했으니	折辱同降虜
외롭게 떠돌던 몸 포로 되었네	羈孤作賤俘
주인집서 굶어 보살피주어	主家紆眷遇
처자 부양 먹고 살 만해졌네	妻子足權娛
조로 밥을 지어 배를 채우고	飯糲聊充腹
양가죽 옷으로는 몸이 따스해	裘羔膾暖軀

25) 이 시에 대한 분석은 이승수, 「유몽인의 연행체함과 중국인식」, 『동방학지』 136,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6.12의 344~346 쪽의 일부 옮겨온 것이다.

26) 이 구간의 역사지리와 산천형세에 대해서는 이승수, 「연행로 중 ‘遼陽 - 鞍山 - 廣寧 구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검토」, 『한국한문학회연구』 47, 2011, 553~592쪽 참조.

부모 생각 마음은 재가 되었고
 고향 그리 눈물은 구슬 같구나
 허망케도 남에게 아비라 하고
 ○室的 노예 되기 감수하누나
 강산은 중하가 널리 열렸고
 전토는 상류가 기름지다네
 식견 적어 갈옷은 벗지 못해도
 피를 써서 권력을 잡기 바라네
 예서 벗어 기쁘게 지위 얻기를
 구석에 엎드림은 부끄러워라
 관리노릇 아무리 영화라지만
 구석진 곳 남몰래 탄식한다오
 태산 올라 뵈나라 작다 하였고
 사신가려 만년에 뜻을 떠났지
 뜻이 멀어 襄모는 바다로 갔고
 완적은 길 끝에서 통곡을 했지
 문장에는 비방이 붙어 따르고
 공업에 머리 셈을 탄식하노라
 세 가지 불후를 다 갖출 수 있나
 인생의 반을 이미 넘어간 것을
 애써서 지난날들 보지 말게나
 우리 인생 참으로 순식간이니

思親心幾燬
 懷土淚如珠
 妄謂他人父
 猶甘■室奴
 江山中夏豁
 田土上游腴
 寡識難離褐
 貽謨望握樞
 罵遷喜得地²⁷⁾
 蛙伏愧非夫
 簪組雖云忝
 偏荒竊自吁
 登山曾小魯²⁸⁾
 將聘晚辭吳²⁹⁾
 志遠襄浮海³⁰⁾
 時危阮哭途³¹⁾
 文章來謗議
 功業歎頭臚³²⁾
 不朽詎三具
 有涯將半逾
 無勞眷踟顧
 人世卽須臾

「海州衛 見國人孫三, 孫金, 太仁孝, 成龍來訪」

22)구까지는 네 사람 유민의 내력이 서사적으로 전개되었다. 비교적 산천과 언어가 통하는 요동에 정착한 이들은 고용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주인들의 온정으로 그 집의 양자가 되었다. 덕분에 의식은 넉넉해졌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남을 부모로 섬겨야 하는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다. 아마 이들의 성씨인 孫, 太, 成은 모두 養父의 그것일 터이다. 여기까지는 네 사람의 내력과 소회를 간추려 대신 기술한 것이다. 그들의 처지가 딱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와줄 방법은 없었다. 이에 유몽인은 처지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입신하고 출세할 것을 권유한다. 명나라의 사회 환경을 기름진 토양에 견주어, 지식으로 입신하기 어렵다면 머리를 잘 써서 성공할 것을 격려한 것이다. 시상은 29)구에 이르면 일변한다. 유몽인의 의식 근저에 ‘넓어 가능성이 많은 중국’ / ‘좁아 답답한 조선’이라는 대립 구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유몽인의 사유는 그들은 불행한 내력을 지녔지만 그래도 가능성 많은

27) 鶯遷 은 『시경』, 「小雅·伐木」의 “伐木丁丁, 鳥鳴嚶嚶. 出自幽穀, 遷於喬木.”에서 유래한다. 과거급제, 승진, 이사 등을 축하하는 표현이다.

28) 『맹자』, 「盡心章上」의 “공자는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게 보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다고 생각했다. 孔子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에서 가져온 말이다.

29) 사신 가기 위해 만년에 오나라를 떠났다는 말인데, 문맥상 앞서 소개한 季札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30) 큰 뜻을 품고 바다 건너 나라에 사신 갔던 사람 襄에 관한 이야기인데, 襄이 누구인지는 찾지 못했다.

31) 쯤나라 때 죽림칠현의 하나인 阮籍은 시대에 비분하여 때로 혼자 수레를 몰아 나섰는데, 일부러 길 아닌 곳으로 가다가 더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통곡한 뒤에 돌아왔다고 한다. (『晉書』, 「阮籍傳」).

32) 頭臚는 머리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환유적으로 머리털이 셈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김종직의 시 「和司禦副正金孝夫名閔宗」에 “세태 자주 변한다고 슬피 마시라, 머리에 흰 털이 남을 탄식하누나. 休將世態悲蒼狗, 只嘆頭臚颯素絲.”란 구절이 있다.

곳에 살고 있으니 다행이고, 자신은 반대라는 쪽으로 방향이 꺾인다.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은 정확하게 ‘蛙伏’이다. ‘蛙伏’은 불현듯 자기 처지에 대한 성찰과 회한을 불러온다. 벼슬이 높다지만 구석진 곳을 벗어나지 못했으니 부끄럽기만 한데, 사행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역사 인물에서 그 근거를 끌어왔다. 하지만 시대 관습과 어긋나는 남다른 문장을 지으면 비방이 따라붙고, 공업을 세우자니 벌써 늙어버렸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조선 사신 유몽인과 유민 네 사람의 차이는 희석되거나 무화되어버린다.³³⁾ 유몽인은 좀처럼 자신의 울울한 심사에서 놓여나지 못했다. 마지막 두 구절은 자신과 네 사람을 하나로 묶어, 그들에 대한 당부이자 자신에 대한 위로의 발언이다.

明代에는 사행로에 조선 사신들을 위한 驛站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고, 따라서 음식이나 멜감 등도 지원되지 않았다. 사신들은 주로 민박을 이용했는데, 그 시설이나 환경이 지극히 열악했다. 유몽인은 해주에서 어느 백정 집에 묵었는데, 그 사람들이며 냄새며 모기 등에 경악하여 방세보다 두 배를 물려받아야 할 판이라고 탄식했다.(29번 「宿海州衛屠家」) 牛家庄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바람이 많은 거야 어쩔 수 없는 기후 요건이라고 해도, 숙소는 돼지똥에 말똥 천지고, 우물은 오래도록 치지 않아 길으면 물보다 흙이 많을 정도였다. 그러한 불쾌감 때문인지 밤에도 별이 빛나지 않았고, 도저히 이런 땅에서는 인재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32번 「牛家庄」) 한편으로는 한여름의 불볕더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바람과 먼지, 마시기 어려운 식수 상태, 더러운 숙소 환경 등과 고투하느라 하룻밤 새 폭삭 늙어버린 느낌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왕명 봉행의 엄중함을 시시각각 자각하고 또 새로운 문명 체험의 설렘으로 자위하였다. 광녕까지의 시에서는 이러한 양가감정이 자주 나타난다. 아래 시에는 존재론적 자아의 정치적 자아의 성찰이 함께 나타난다.

수레 몰아 요동 땅 들어서 보니
 요동 땅 푸른 하늘 잇닿아 있네
 쭉 앞은 말 머리를 스쳐 지나며
 동서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해
너는 장차 어디로 가려 하기에
뿌리 떠나 피로이 떠나니느냐
 저는 본디 보잘 것 없는 식물로
 일찍이 찬 서리를 맞았습니다
 흑풍이 북쪽에서 일어나서는
 흥노의 사막을 몰아쳐 오면
 솔과 대도 제 몸을 견딜 수 없고
 난초 혜초 떠돌아 헤맨답니다
 저처럼 뿌리가 얇은 몸이야
 이리 저리 멈출 곳 모른답니다
 덩굴풀은 서로 엉겨 잡아주면서
 높다란 나무에다 몸을 맡기죠
 가시나무 땅속에 뿌리가 깊어
 모여 나서 서로를 잡아주지요
 섬돌 옆에 피어난 향그린 장미

驅車入遼壘
 遼壘連碧落
 孤蓬掠馬首
 東西無住着
問爾將焉如
辭根苦漂泊
 言我植物微
 早被嚴霜剝
 黑風從北來
 振蕩龍荒漠
 松篁不自持
 蘭蕙猶蕭索
 況余植根淺
 轉輾迷所薄
 藤蘿相攀援
 高樹是依托
 荊棘得地深
 叢生相羈絡
 芬芳壻上薇

33) 이정구가 1604년 廣寧에서 만난 조선 출신 승려에게 준 시, 이정구, 「寓廣寧 有僧來謁 自言安岳居僧 因亂 隨天兵過江 今住普慈寺 欲歸未歸云 連日來款 臨行 持一牋求詩 漫書慰之」(『월사집』 권 4)에도 비슷한 대도가 나타난다. 이러한 시들은 관점 여하에 따라 크게는 ‘진란과 유민’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난간 앞에 예쁘게 자란 작약은
 동산에 들어가서 아양을 떨며
 난간 앞서 고운 자태 뽐낸답니다
 큰바람아 내 너를 어이 하리오
 처지에 편해야만 자유로우니
 가거라 이젠 다시 말하지 말라
 안분이면 무엇이 부끄러울까

阿那欄中藥
 入苑媚容顏
 當檻夸灼婢
 大風如爾何
 安土猶自若
 去矣勿復陳
 安分吾何作 「遼野有感」

길을 가는 도중 바람에 흩날려 말머리에 부딪치는 쭉 잎을 주목하는 것으로 시상을 열었고, 그 쭉 잎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구조를 엮었다.³⁴⁾ 화자의 물음에 쭉 잎의 대답이 제시되는데, 그 대답 중의 嚴霜, 黑風, 松篁, 蘭蕙, 藤蘿, 高樹, 荊棘, 苑, 장미, 작약, 동산은 모두 알레고리이다. 장미와 작약은 아첨하는 신하이고, 苑은 궁궐(임금)이고, 高樹는 권귀가 있고, 荊棘은 기득권 세력이고, 藤蘿는 당파이고, 松篁과 蘭蕙는 올곧고 맑은 선비이며, 嚴霜과 黑風은 가혹한 정쟁을 지시한다. 가혹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 모든 존재들은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생존한다. 덩굴풀은 권귀(높은 나무)에게 엉기거나 자기들끼리 엉겨 살아남는다. 이들 또한 현실에 깊이 뿌리를 박고 서로를 도와주며 살아남는다. 장미와 작약은 교언영색으로 임금을 속여 살아남는다. 피해를 보는 것은 현실적 기반이 없는 올곧은 선비들일 뿐이다. 자신처럼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독립적 개인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쭉 잎은 어지러운 세태와 자기의 고단한 처지를 하소연하는데, 모두 조선의 정치 현실 속 유몽인의 처지를 지시한다. 쭉 잎은 곧 유몽인 자아의 외적 상관물인 썸이다. 하소연을 듣고 난 화자는 점잖게 쭉 잎을 타이른다. 천지간에 부는 바람을 막을 수는 없으니,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여 더 이상 불평을 늘어놓지 말라고 한다. 이는 곧 자신에게 요구하는 주문이며, 자위인 썸이다. 고뇌와 비애를 독백이나 불평으로 늘어놓지 않고, 사물과의 대화로 구성하고 다시 알레고리의 기법을 사용하여 입체화하는 것은 유몽인이 즐겨 구사했던 작시 기법이다. 1609년은 광해군 원년으로 대북과 소북 그리고 서인 등이 얽힌 정쟁이 심각했던 때이다. 일찍이 그는 당색에 따라 교우 관계가 왜곡되는 세태를 못 마땅하게 여겨, 자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누구와도 사귄 수 있는 ‘한 사람’임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시는 가혹한 현실에 처해있는 독립된 자아 내면의 끊임없는 고뇌-자위의 운동 양상을 잘 보여준다.

삼차하 건너에서 高平까지는 邊牆 구간으로, 그 사이의 마을은 모두 군사 방어 시설에 형성된 것이다. 16세기 말에서 후금이 요양을 점령하는 1621년 사이의 연행사들은 이 변장의 인상과 전선의 긴장감을 자주 시에 담곤 했다. 유몽인은 이 변장의 긴장감과 봉화가 멀리 鴈門關과 榆關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³⁵⁾ 또 명나라 초병들의 마음을 상상하여, 바람이 불면 공격을 알리는 적의 피리 소리가 아닌가 하여 온 신경이 얼어붙고, 평원의 풀이 움직이면 마치 장검이 번뜩이는 듯하여 섬짓 놀란다고 했다.³⁶⁾ 이는 상상의 표현이지만 당시 이 일대 전선의 긴장감을 사실 이상으로 보여준다. 한편 명나라 말기는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뇌물이 성행하였음은 우리 연행사들의 기록에도 자주 나타난다. 유몽인의 시야에도 그러한 현상이 포착되었다. 행정 현장에서는 뇌물이 아니면 일이 처리되지 않았는데, 이는

34) 시상의 계기가 된 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쭉잎이다. 이 쭉은 요동벌에 나는 전봉(轉蓬)이라고 하는데, 둥근 잎이 땅에 붙어 있다가 바람을 만나면 날린다고 한다. (李德壽, 『西堂集』 권 2, 「遼東」의 주석에서 “客談云, 古人用轉蓬, 不知何物. 使遼見蓬花, 枝葉相屬, 團欒在地, 遇風即轉, 問之云, 轉蓬也, 此是遼野所產.”이라고 하였다.)

35) 「高平卽事」 其 2. “風雲通鴈塞, 烽火達榆關.”

36) 「高平卽事」 其 3. “孤戍風傳疑短笛, 平蕪草動怕長刀.”

조선 사신들에게도 적용되었다. 능력이 부족한 관리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목인하고 은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런 광경을 목도하고 저런 현상을 겪으면서도, 당시 조선 지식인으로서 그 이상의 전망을 갖기는 어려웠다. 유몽인도 그저 사신의 책무에 중압감을 느끼면서 행보를 계속할 뿐이었다.³⁷⁾

4) 요동 제일의 도시 廣寧, 실상의 은폐와 착각

高平을 출발하여 盤山을 지나면 곧 멀리 의무려산이 나타난다. 산 아래 명대 요동 최대의 군사도시 廣寧城이 있었다. 광녕성은 遼東總兵과 遼東巡撫使가 주재하는 요동의 鎮城이었다. 성벽은 높았으며 시가는 번성했다. 1609년은, 여진족이 발흥하여 撫順(1618), 遼陽(1621), 瀋陽(1625)을 차례로 차지하는 격변을 눈앞에 둔 시기였다. 유몽인은 이러한 격변을 감지하였을까? 유몽인은 광녕을 배경으로 모두 9수의 시를 남겼는데, 대체로 도시의 변화상에 대한 놀라움을 담고 있다. 명나라 중심의 세계 질서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곧 일어날 국제 질서의 지각 변동을 감지하지 못했다. 광녕성의 변화상은 실상을 은폐하였고, 조선 사신은 현상에 현혹되어 당시의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했다.

여산에 범 쭈그리고 변방을 진무하니	虎踞醫巫鎮塞垠
천 개 雉 웅장한 성 구름까지 치솟았네	雄城千雉矗長雲
거리 가득 풍악소리 변방 달 시끄럽고	填街笳瑟喧關月
벌린 진 용사들은 삭방 기운 쓸었도다	列陣貔貅掃朔氛
순무사 순찰하매 수레 행차 엄속하고	繡使巡邊徒御肅
총병의 전략 위해 장막이 성대하네	摠戎謀野供帳殷
북경도 보기도 전 눈 먼저 어질하니	玉京未覩先花眼
깨진 독 속 개구리 견문이 달렸어라	缺甃癡蛙局見聞

「廣寧」 연작 중 첫 번째 시이다. 首聯은 마치 범이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어떤 동물도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듯, 웅대한 광녕성이 주변 오랑캐들의 발호를 막고 있음을 말하였다. 頷聯에서는 풍악 소리 가득한 도시 거리의 변화한 모습과 군사들의 위력으로 일체의 소요 없는 변방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찬미하였다. 頸聯은 순무어사의 수레 행차와 요동총병의 야전 장막의 위엄을 묘사함으로써, 행정과 軍務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마지막에서는 경탄으로 시상을 거두었다. 광녕의 화려하고 웅장한 광경에 북경에 가기도 전에 벌써 눈이 어질어질하니, 자신의 견문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갇혀 있음을 자탄했다. 다른 시들의 분위기도 매한가지이다. 삭방 봉화대에 불 꺼진 지 오래이니 길에는 재화를 운반하는 수레들이 가득하다. 부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술집에서 미인을 안고 있으며, 들판에는 오곡이 풍성하다. 유몽인은 이를 300년 평화의 결과로 보았고, 아예 여기서 놀며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말하기도 하였다.³⁸⁾ 이러한 태도는 5언 배율 「광녕」에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37) 「高平卽事」 其 1. “성군 교화 만방에 퍼져 있는데, 피 쓰느라 금전을 자주 뿌리네. 돌아봐도 세상 구할 재주 없으니, 서툰 관리 서로들 기뻐 수밖에. 날짜에 늦어질까 항상 저어해, 좋은 계절 중간에 어그러졌네. 이로써 수레꾼을 경계하노니, 닭이 울면 깃발을 엄숙히 하라. 聖渥浹萬邦, 行謀金屢揮. 顧余乏周才, 拙疾相因依. 常恐節序晏, 佳期中途違. 以此戒徒御, 鷄叫肅征旂.”

38) 네 번째 시. “3백년 승평 세월 민생이 즐거우니, 평범한 변방에도 물색이 호사롭다. 이로부터 말 몰아서 고향을 잊으려니, 초나라의 초혼가를 부르지 마시게나. 昇平三百年來樂, 邊塞尋常物色奢. 從此揚鞭忘故里, 招魂休唱楚人歌.”

광녕 지역 옛날의 흉노 땅으로
 동해의 한 구석에 치우쳐 있네
 어느 헨가 황야를 개척하고는
 중국에서 유주를 처음 열었지
 성무 황제 천하에 제사 지내곤
 산하 모두 성으로 둘러쌌도다
 순무어사 동복을 크게 떨쳤고
 장막에는 용사들 늘어서 있네
 구슬 갖춘 예복에 늘어뜨렸고
 명옥 소리 다락에 처연하도다
 이민족들 변방에 귀순하는데
 천 마리 낙타가 나란히 온다
 수레엔 공물들이 그득 차있고
 담장 안에 보배들 쌓여있도다
 노추는 흑산에서 사냥하는데
 돼지 가죽신 파란 투구와 갖옷
 죽지사 슬픈 노래 일어나는데
 해 지는 변방 고을 시름겨워라
세상이 승평한 지 200년 세월
변방에는 아무런 근심이 없네
 조선에서 건너온 늙은 학사에
 한 필 말 유관의 가을이로다
 먼 길에 머리털 색이 변했고
 청구의 고향 땅은 멀기만 하네

廣寧古獯鬻
 地僻東海隈
 何年拓荒落
 中國開幽州
 聖武奠寰宇
 山河襟帶周
 繡衣振維紀
 玉帳羅貔貅
 華纓影黼幄
 鳴玉淒珠樓
 殊俗來歎塞³⁹⁾
 橐駝駢千頭
 輿儷飭琛賚
 墻壁堆琳瑯
 老酋黑山獵
 豬韉青兜裘
 悲歌起竹枝
 日落邊城愁
昇平二百載
徼圉無虞憂
 東海老學士
 匹馬榆關秋
 長途換玄鬢
 故里阻青丘

이 시만 놓고 보면 광녕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천하의 중심 도시이다. 완벽한 방어시설(5,6구), 군사적 효험과 관리들의 위의(7~10구). 특히 사방의 이민족들이 자발적으로 바리바리 공물을 가지고 와서 귀순하는 모습을 그린 11~14구와, 사냥에 종사하는 야만적이고 그래서 웬지 모르게 슬픈 수렵 민족을 묘사한 15~18구는 자못 대조적이다. 유몽인은 세계의 구도를 단단하고 안정된 중심(안)과 여기에 복종하는 주변(밖)으로 파악하였다. 廣寧은 명나라 나아가 중화를 상징하는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는 변방에는 어떠한 근심도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불과 10년도 못되어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고(1616) 이후 그들에 의해 조선과 명나라 모두 대변동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유몽인의 세계 인식은 실제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유몽인 개인의 차원을 넘는 조선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다. 당대 조선 최고의 지식인 유몽인도 국제 정세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했고, 조선은 역사의 변동을 준비하지도 이끌어가지도 못했던 것이다.

4. 소 결

유몽인은 광해군 즉위 초인 1608년 2월 관직을 잃은 채 15개월 정도 야인으로 보냈다. 당시 그의 삶은 매우 절망적인 극심한 침체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연행사절의 정사로 임명

39) 歎塞는 이민족이 변방에 와서 귀순하는 것을 뜻한다. 寇邊은 반대로 변방을 노략질한다는 뜻이다.

되었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다. 권력의 지원과 우호를 배경으로 제수된 것이 아니라, 명분상 귀찮은 일에 떠맡겨진 인상이 짙다. 귀국 직후에도 유몽인은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듬해(1610, 52세)에는 남산에 屏居하며 문장으로 自娛했고(「年譜」), 그 다음해에는 아예 高興으로 내려가 2년을 머물렀다.⁴⁰⁾ 사행 뒤 승진 등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는 상례와는 사뭇 다른 행보이다. 이 일련의 잠행에 작용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찰이 필요하지만, 일정 정도는 1609년의 연행 체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개월에 걸친 여행에 지치기도 했겠거니와, 앞서 보았듯 그는 여행 내내 정치현실에 대한 환멸과 은거에 대한 동경을 표백했기 때문이다.

유몽인의 3차 연행은 정치적 소외로 인한 극심한 피로감 속에서 실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0여 수의 시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당대의 집권세력에 대한 극심한 혐오와 정치현실에 대한 환멸이다. 이는 가깝게는 광해군 등극 이후 北人의 전횡과 자신의 失職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멀리는 일사불란한 행진을 내세우는 집단의 논리와는 맞지 않는 그래서 늘 주류 세력과 불화했던 그의 생리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엄매이기 싫어하는 자유주의자 또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했고, 또 자의식과 자부심이 남달랐는데, 이는 늘 현실과의 불화를 빚어냈다. 이러한 불화는 여행 중 왕왕 우울증 비슷한 심리를 낳았다. 내면의 자의식으로 거대한 세계의 부조리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한계에 부딪칠 때마다 생기는 자괴감이나 패배감은 여러 시편에 드러난다.

하지만 유몽인은 상투적인 자탄이나 유약한 감상에 마음을 맡기지 않는 것이다. 그의 시에는 조선의 정치 현실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환멸·혐오·비애의 감정 사이사이에 명나라의 새로운 문물 체험과 사신으로서의 임무에 대한 환상·포부·다짐이 수시로 자리를 바꿔가며 나타나 긴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평소 그의 가장 큰 포부는 중원을 편력하며 천하의 재사들을 만난 뒤 조선에도 인재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었고, 실제 그의 중국 이해 수준과 이를 통한 조선 개혁의 의지는 당대에 독보적인 것이었다. 광녕까지 가는 도중에만 해도 유몽인은 빈번하게 사신으로서의 책무와 의욕을 환기하며 마음가짐을 가다듬곤 했다. 유몽인에게 연행은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신나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 정치 관료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에 반비례하여 시인과 경제가로서의 자의식은 강하게 드러났으니, 그 두 극점 사이의 거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당시 유몽인의 내면이자 실존이라 할 수 있겠다.

연행은 유몽인의 삶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3차 연행의 시편들에 그 체험이 온전하게 담겨 있다. 이 글은 그 중 50여 수의 시를 텍스트로 삼아 1609년 여름 20여 일 사이 유몽인의 행보와 내면을 살펴본 결과이다. 이 작업은 작게 유몽인 삶과 문학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재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경우에 따라 일부는 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시적 관찰로 거시적 효과를 얻는 것을 기대해본다. 유몽인의 사행 여정은 아직 한참 남아 있다. 9월 4일 만력제의 생일축하연에 참여하고 최소한 보름 정도 북경에 머물렀다가 출발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빨라도 11월 10일은 되어서야 한양에 도착했을 것이다. 광녕 이후에 지은 시만도 200수에 달한다. 나머지 시들을 조명하여 어떤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지리 공간으로 구획하였지만, 더 효율적인 범주 구분과 접근 경로가 요구된다. 후속 과제로 남긴다.

40) 낙향 당시의 정황은 「南歸錄」(권 2) 소재 몇 편의 시에 나타나 있다.

[참고문헌]

- 『於于集』 (한국문집총간 63책, 고전번역원, 1991)
『於于集』, (경문사, 1977)
『遼東志』, 『全遼志』 (遼海叢書 소재)
이정구, 『月沙集』 (한국문집총간 69,70, 고전번역원, 1991)
이덕수, 『西堂先生集』 (전의이씨청강공과화수회, 2001)
- 김영미, 『奇簡과 유몽인의 산문』, 태학사, 2008, 1~386쪽.
김우정, 「유몽인 산문에 있어 自得의 의미와 의미실현 양상」, 『동양학』 40, 2006, 1~18쪽.
신승훈, 「어우 유몽인 산문론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18, 2003, 63~90쪽.
신익철, 『유몽인 문학 연구』, 보고사, 1998, 56~116쪽.
이승수, 「연행로 중 ‘遼陽 - 鞍山 - 廣寧 구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검토」, 『한국한문학연구』 47, 2011, 553~592쪽.
이승수, 「유몽인의 연행체험과 중국인식」, 『동방학지』 136,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6.12의 344~346.
한명기, 「폭군인가 현군인가, 광해군 다시 읽기」, 『역사비평』 44, 역사비평사, 1998.8, 163~172쪽.
http://blog.sina.com.cn/s/blog_728f886101011j6q.html

Several Scenes on Diplomatic Trip Route to Beijing of Yu Mong-In in Summer 1609
From Aprokgang River to Guangning

Lee Seungsu

Yu Mong-In started the third diplomatic trip to Beijing in early May 1609. His title was the chief delegate. He wrote about 250 poems until he came back in Nov. Those poems form a variety of extensive spectrum showing his inner emotion and the view of the world. This paper aimed to investigate the thoughts of Yu Mong-In at that time by analyzing his 52 poems written during about 20 days from Aprokgang River to Guangning among his 250 poems. The microscopic investigation will be useful to identify the vital aspects of a person in a specific period and will be the important basis to understand and reconsider Yu Mong-In and the times when he lived.

The first discussion was the form of poem. He wrote 52 poems in the route from Aprokgang river to Guangning. Of them, there are 20 long poems with more than 12 phrases. It is very special case. It is characterized as the uncontrolled burst of passion itself. Those poems showed the tendency of overflow and release rather than implication and restraint of psychology or aesthetic consciousness of Yu Mong-In at that time. Hatred against political reality, specific situation 'trip', and extensive geography in Liaoning different from Joseon would have influence on those characteristics in combination. The dimensional structure using dialogue style and dynamic conversion of poetic concept were collateral phenomenon.

Yu Mong-In was the unemployed for about one year because of the political change at that time. Thus, his health and psychology were very intimidated. Moreover, he was in very bad mood when starting the diplomatic trip to Beijing. His such mental state continued. However, Yu Mong-In didn't give his psychology to conventional self-complaint or weak feeling. With unique enthusiasm and wills for experience in broader world, Yu Mong-In was very excited to experience new culture and enlarge the experience in spite of uneasiness. He pledged his aspiration and mission as the delegate again and again. Diplomatic trip to Beijing was painful but the most exciting and

valuable for him. Thus, he maintained the proper tension in his spirit and mind.

Key Words : Yu Mong-In, Diplomatic Trip to Beijing, Record on Diplomatic Trip, Liaoyang, Guangning